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옷의 힘

THE POWER OF CLOTHING

[특집]
독일에 살며
베를린에서
일하는
시리아 난민



18
SUMMER

UNI
QLO

Life Wear



BEFORE
시리아의 세계 유산이



AFTER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알레포. 기원전 건축된 고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성과 시장(수크)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격화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시장은 무참히 파괴되었다.
사진 상·하 © 로이터/아프로

독일에 살며 베를린에서 일하는 시리아 난민

최근 수 년간 무수한 난민이 유입된 독일.
수도 베를린의 유니클로 점포에서는,
현재 3명*의 난민이 일하고 있다.
그들의 일상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photographs by
Dahahn Choi for The Bakery



압둘라흐만 아르 넷서 25세(이하 압둘). 시리아 내전을 피해 먼 독일까지 왔다.

태어나 자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떠나게 된 것은 2015년 9월이었다. 전투가 격화되는 가운데 시리아에 남기로 한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최소한의 짐만 배낭에 챙겨 압둘은 고향을 떠났다.

그에게 닥친 위험과 추위, 불안 가득한 고난의 여정에 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다.

힘겹게 독일에 다다른 압둘은 난민으로 인정받아, 독일어를 배우고 취업 허가도 받아 베를린 교외에 집을 빌렸다. 그 후 유니클로에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거쳐 베를린 유니클로 타우엔치엔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동료와도 친해졌다. 지금도 일하면서 독일어 상급반을 수강하고 있다. 독일 대학 경영학과 진학도 고려하고 있다.

이쯤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수년간 독일은 신청, 인정, 대기인원을 포함하여 18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해 왔다. 왜일까?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는, 난민에 대한 보호가 명기되어 있다. 그 근거에는 제2

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반세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수용 실적도 있다. 1990년에는 다수의 구 유고슬라비아 난민을 수용했다. 그 때마다 국론이 찬반으로 갈렸지만, 현재 인구의 5명 중 1명이 이민자 출신인 독일에게, 이는 처음 겪는 시련이 아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난민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그 목소리는 더 커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 사회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일관되게 난민을 수용하며, 난민과 독일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난민 수용은 독일 사회의 노동인구를 뒷받침해줄 소중한 축이라는 견해도 있다. 노동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나라가 더욱 풍요로워 진다는 사고방식. 독일은 노동의 미래와 그 지속성을 내다 보고 있다.

시리아 난민의 현재

난민
A to Z

2015년 말, 세계에서는 분쟁과 박해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6,500만 명을 돌파했다. 유례없는 최악의 사태이다.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 난민 중, 국내로 피난한 사람은 약 630만 명, 해외로 떠난 사람은 500만 명을 넘었다. 그 중 절반은 여성과 18세 미만의 어린이들. 내전이 발생하기 전, 초등교육을 받는 어린이 비율은 100%에 가까웠다. 지금은 6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 2017년 5월 현재.



형이 가져다 준 배낭. 오른쪽 옆에 있는 것은 상자에 든 초소형 사이즈 코란. 어머니가 적어준 지도문은 접어서 넣었다. 스마트폰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생명줄. 손목시계는 어느새 망가져 있었다.

독일을 향해 다마스쿠스를 나온 압둘은 국경을 넘어 터키로 들어가 다른 난민들과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가려고 했지만, 도중에 보트가 난파되고 말았다. 목숨은 건졌지만, 가지고 온 집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터키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압둘의 형 무하마드가 새로운 배낭을 터키까지 가져다 주면서 합류했고, 그 때부터 형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정원을 훌쩍 넘어 40명 이상이 탄 고무보트로 한밤중에 터키의 이즈미르를 출발. 그리스 사모스 섬에 도착하여, 섬 반대편에 있는 항구까지 6시간을 걸었다. 그곳에서 큰 배로 갈아타

고 그리스 테살로니키로 향했다.

테살로니키에서부터는 육로였다. 버스를 타고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두 나라를 횡단했다. 헝가리와의 국경 앞에서 버스를 내렸다.

걸어서 국경을 넘어, 한밤중의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절도단에게 습격당할 뻔했다. 헝가리 경찰에게 발각되면 송환된다는 소문도 있었다. 상공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헬리콥터가 수색하고 있었다. 옥수수밭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계속되는 비에 옷몸이 젖어,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 걸었다. 먼 곳에서 경찰건이 짚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난민을 관할하는 경찰에 잡혔고, 경찰은 우리를 버스에 태워 부다페스트로 보냈



압둘이 지나온 시리아에서 독일까지의 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독일 뮌헨으로 가는 이른바 '발칸 루트'의 거리는 약 3,400km.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중단 육로는 약 400km이다. 뮌헨 도착 후에도 압둘 씨는 독일 국내를 전전하게 되었다.

위: 전투로 인해 파괴된 시리아의 거리. 레바논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사진 ©UNHCR)

다. 수용된 시설은 낡고 열악한 위생상태였다. 다 썩어가는 음식이 식사로 나왔다. 얼음장 같이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겨우 해방된 두 형제는 전철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준 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신선한 주스와 초콜릿의 맛도, 칫솔과 치약으로 이를 닦고, 새 옷과 배낭을 받았다. 전철을 타고 5시간 후, 드디어 독일 뮌헨에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스마트폰 SIM 카드를 받아 시리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다. 새로운 인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A to Z

‘발칸 루트’ 폐쇄 후 현재

시리아에서 터키, 그리스로 이동해,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발칸 루트’는 압둘이 통과하고 약 반 년 뒤인 2016년 3월, 유럽연합(EU)이 터키 체재 난민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폐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피난해 오는 사람들의 그리스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난민 신청 접수와 심사 작업에도 시간이 걸려, 체류 중의 위생과 건강상태가 우려된다.



입들은 본격적인 독일어 학습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NGO '시스템 데이터'가 운영하는 무료 독일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상급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역사, 문화, 전통, 지역에 따른 특성도 배울 수 있다.



2015년 9월 15일, 뮌헨에 도착한 입들은 그 날 바로 폴란드와의 국경에 인접한 아이젠취텐슈타트로 옮겨졌다. 새 옷 한벌을 받고, 냉기가 올라오는 텐트 침대에서 잤다. 그로부터 이틀 후, 독일어 기본 회화 수업이 시작되었다.

다음 시설은 베를린 교외의 뤼어스텐베르크. 큰 건물 안에 2단 침대가 3개나 있는 넓은 방이 제공되었다. 공부할 책상도 있었고 틈틈이 청소도 하러 와주었다. 뜨거운 물이 나왔고, 샤워와 화장실도 깨끗했다. 쾌적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앞날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다마스쿠스를 떠나와 처음으로 무료함을 느꼈다.

독일어 수업은 첫 달에 주 1회, 2개월째부터는 주 2회, 3개월째부터는 매일 있었다. 독일어 예문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시간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는 독일인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등을 배웠다. 시민회관과 독일 가정집에서 초대를 받아 친목 파티에도 참석했다. 친절 한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독일에 오래 산 친구를 따라 베를린에 갔다. 전철 타는 법, 전철 시간표 읽는 법을 배웠다. 시설에서 역까지 도보로 25분. 특급을 타면 베를린까지 1시간이었다.

베를린 시내의 아랍인 거리에도 갔다. 이곳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부터, '레스토랑이나 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횡단보도 신호를 지킨다', '먼저 시비를 붙이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레히니츠 시설에서는 식비가 제공되는 자취 생활을 했다. 요리를 해 본 적이 없어, 시리아에 있는 어머니와 이모에게 전화해서 레시피를 물었다.

난민에게 집을 빌려주는 독일인 호스트패밀리를 소개받아, 뤼어스텐베르크의 작은 집을 빌려 형과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베를린의 독일어 학교에도 매일 다니고, 주인집 부인에게도 개인 지도를 받았다. 독일어 자막 DVD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다. 주인집 아저씨의 독일어를 조금씩 알아듣게 되었다.

부부는 아파트 찾기, 계약 상담, 계약 당시에 도 합석해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지금은 베를린 교외 테라스하우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난민 A to Z

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난민의 긴급보호에서 독일어 교육, 그리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베를린의 NGO '베를리너 슈타트 미션' (베를린시의 사명'을 의미)에 의하면, 난민 대응의 3가지 축은 '어학 교육, 친구 관계 구축, 통합'이라고 한다. 소통에는 어학력이 필수이고, 독일인과 접하며 서로를 알고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최종 목표는 독일 사회와의 통합. EU의 사상과 토대는 같다.



유니클로 독일 사업에서 난민지원을 담당하며, NGO 등과 연계해 난민 고용을 추진하는 마리아 씨와.

많은 도움을 주었던 튀어스텐베르크의 집주인 부부가, 시리아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독일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물었다. 임부복 매장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부부의 딸이 베를린 유니클로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니클로의 히트백 이너웨어를 집주인 딸에게 선물 받았다. 입어보니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다. 첨단 기술로 이런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후 직접 베를린 매장에 가서 울트라라이트 다운 재킷을 샀다. 얇고 가볍고 멋있었다. 그리고 아주 따뜻했다. 더욱더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어 교실에 계속 다니면서, 복잡한 업무가 가능한 어학 레벨인 B1 시험에도 합격했다. 부부와 상의하여 유니클로에 직무경력서와 이력서를 보냈다.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은 모두 온화한 표정으로 대응해 주었고 친절했다. 간절히 바라던 채용이 결정되었다. 독일에 온 지 어느새 9개월이 지났다. 독일어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 내전으로 인한 심적 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독일에 살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깊이 감사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독일어로 상품 지



압둘은 유니클로 타우엔치엔점의 Men's 플로어 담당.接客할 때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잊지 못할 큰 실수도 했다. 고객이 구매한 치노 팬츠를 수선하면서, 또 다른 팬츠의 수선도 같은 길리로 박고 말았다. 디자인도 스타일도 전혀 다른데 말이다.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은, 독일 출신이 아닌 스태프가 많다는 것. 신체에 장애가 있는 스태프도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것. 각 플로어에 팀이 있어 서로 사이좋게 도와가며 좋은 팀 플레이를 한다는 것.

지금 근무하는 매장은 유럽에서 최대 매장 면적을 자랑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이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플로어 매니저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유니클로 점장이 되고 싶다.

난민 취업 지원 현황과 과제

난민 A to Z

NGO '베를리너 슈타트 미션'은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별 국가 자격 시험 기준, 이력서 작성법, 입사를 위한 면접 대책을 알려주고, 개인 상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면접관 가령 면접자가 마음에 든다 해도 미소조차 띠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부분까지 전달해 줌으로써, 난민의 불안을 덜어준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서는 국적이나 중동계 이름만 보고 서류전형 단계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베를린 교외에 있는 압둘 형제의 집. 닭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은 마카로니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



베를린에서 전철로 1시간 반 거리의 교외에 있는 압둘 형제의 집을 방문했다.

시냇물이 흐르고 풍요로운 자연이 고즈넉한 거리를 걷다 보면 뒤뜰이 있는 테라스하우스에 도착한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된 밝은 집. 들을 향한 창문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유닛 키친을 설치하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갖추는데 돈이 들었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왔고 가구는 대부분 중고품을 얻어 장만했다.

두 형제에게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요구 반정부 활동은, 리비아, 이집트로 번져 시리아에 까지 이르렀다.

압둘 형제가 사는 수도 다마스쿠스는 정권이 있는 도시라서, 알레포처럼 격심한 폭격을 당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일은 없었다. 시리아는 절대적인 독재정치로 이어져 온 나라이고, 시위로 인해 무언가를 근본부터 바꿀 수는 없다—형제는 애초 운동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100명 정도였던 시위대는 갈수록 인원이 증대하여, 교외에서는 무력충돌도 일어나게 되었다. 2014년에는 거리의 벽에 '자유'라고 쓴 10대 무리가 지방도시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은 손톱을 벗기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 반정부세력의 팽창에 따라, 처음엔 시위를 진압

하는 정도였던 정부 측 움직임이 점점 군사력 행사로 변해 가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크게 변화했다.

이윽고 다마스쿠스 교외에서도 격심한 공중폭격이 일어나게 되었다. 형제들이 사는 집 주변은 폭격을 면했으나, 일반인에게도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출국을 결심했다.

이렇게 우리를 받아들여 준 독일에서, 자유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체감했다. 시리아에는 이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 가까운 역까지 함께 걸었다. 역 통로의 흰 타일 벽에, 검은 글씨로 적힌 작은 낙서를 발견했다. 「REFUGEES WELCOME」 (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난민 A to Z

앞으로의 유니클로 난민 고용에 대하여

독일 유니클로의 난민 고용은 아직 시작단계이다. 그러나 난민 채용이 스태프 간 팀플레이의 질을 높여주고, 고객 및 지역 주민과 작은 교류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니클로 타운엔치엔트에서는, 각 플래어에 난민 스태프 배치를 계획 중이다. 난민고용 활동은 일본,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유니클로에서도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패션 기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히 보기
<http://www.uniqlo.com/kr/sustainability/refugees/>

2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자립 지원

난민에게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자립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제나 자수 기술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2016년부터 UNHCR에 3년간 1,000만 달러 지원을 시작, 그 중 550달러가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됩니다.



©Natsuki Yasuda/STUDIOAFERMOE

◀자세히 보기
<http://www.uniqlo.com/kr/sustainability/refugees/independent/>



◀자세히 보기
<http://www.uniqlo.com/kr/sustainability/refugees/>

3 함께 일할 수 있도록……난민 고용

유니클로 일부 점포에서는 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시작 후, 다양한 난민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수용 인원의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고용 후의 지원 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100명 채용을 목표로, 현재 45명(2017년 5월 15일 현재)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유니클로가 시작한 것은 옷을 보내는 것, 자립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함께 일하는 것—.

1 옷을 전달하는……의류 지원

유니클로는 2006년 '전 상품 리사이클'을 개시. 2007년, 글로벌 파트너인 UNHCR(유엔 난민기구), NGO 등과 함께 옷을 필요로 하는 난민과 피난민 등에게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옷을 보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말까지 약 2,033만 점 이상을 전달하였으며, 한국 유니클로는 난민 이외에도 국내 자활노숙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함께 살며, 함께 일한다. 난민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전투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살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게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이 몇 천 킬로나 떨어진 모르는 나라라고 해도,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이유와 배경은 달라도, 자국을 떠나야 할 때의 불안감은 누구나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우 도달한 나라가 안전하다고 해도, 그 나라의 말을 전혀 모른다면 어떨까요? 소리가 들리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나 절실한 상황을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그 불안은 높은 담에 에워싸여 그 너머가 보이지 않는 상태나 다를 바 없겠지요.

언어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습관이나 문화를 모르면, 작은 행동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국경 하나 넘는 것만으로 작은 몸짓이나 표정이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는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 세계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교환하며 서로가 연계됨으로써 성립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몇 천 킬로나 떨어진 나라의 분쟁이나 박해는 더 이상 무관한 사건이 아니며, 세계의 지속가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6,5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유니클로는 '옷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의류 지원, 자립 지원, 난민 고용을 축으로 UNHCR(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조직들과 손을 맞잡고, 지지해 주시는 고객의 도움을 받으며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상황에 놓인 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하는 환경을 정비하여, 난민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세계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계의 미래와 그 지속가능성에도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민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uniqlo.com/kr/sustainability/>

유니클로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 자세히 보기.

유니클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검색



